

판타지의 · 새 · 보금자리 · 반짝별레 · 따라 · 경험하는 · 세계의 · 동화 · · ·

차보금



잠 안 자고 보채는 아이들을 재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책을 읽어주거나 스스로 책을 읽게 하면 금방 해결될 일! 책은 지식의 창고요, 이야기의 보고이나 때론 이렇듯 묘 방법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숫자를 세도,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 봐도 잠이 안 온다는 《반짝벌레》의 주인공 ‘기쁨이’ 역시 이 묘방을 이용해 꿈나라로 진입하려 애쓴다. 그런데 이게 웬일! 도서관에서 빌려온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속에서 누군가 말을 건넨다. “책을 좀 펼쳐 줘. 밖으로 나가고 싶어.” 목소리의 주인공인 즉 1774년에 나온 최초의 동화책 존 뉴베리의 《작고 예쁜 포켓북》 속에서 나온 반짝벌레다. 1998년에 완성된 초고 속에서 세상으로의 ‘돌진’을 기대하고 있던 반짝벌레를 6년 만에 빛을 보게 했으니 동화작가 차보금(36) 씨는 책 출간 자체가 그저 기쁨 뿐이라고 밝힌다.

“책읽기를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을 닮은 기쁨이가 이 책 저 책을 옮겨다니는 반짝벌레를 만나 다양한 책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둘을 낳기 전 어린이 도서관에 출퇴근하다시피 할 시기였어요. 동화를 찾고 읽으면서 반짝벌레를 닮은 벌레들이 책 속에 파묻혀서 책을 읽고, 책만큼 나이를 먹어갈 거라는 상상을 했던 게 계기가 되었지요.”

《반짝벌레》는 본래 도서관 사서와 기쁨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로 구상됐었다. 그러던 중 환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는 플롯이 독자들을 ‘책세상’으로 안내하는 데 더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고, 결국 이야기는 판타지 동화로서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1998년부터 시작한 작업이니 책이 나오기까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인데 그사이 차보금 씨는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반짝벌레》 때문에 노트북을 끼고 산후 조리원에 들어간 추억도 있다하니 반짝벌레와 차씨가 쌓아놓은 우정이 얼마나 각별할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 일이다.

그렇게 완성한 《반짝벌레》속 ‘책세상’

은 독자들로 대변되는 기쁨이와 안내자 반짝벌레, 길 잃은 분홍토끼를 향해 문을 활짝 열 어놓는다. 기쁨이는 그곳에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엘리스와 함께 여왕에게 재판을 받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찰리에게 황금빛 초대장을 찾아주는 임무 등을 떠안는다. 책으로 형상화된 세계를 누빈 기쁨이가 얻어오는 것들도 많다. 마법사 오즈가 전해 준 자신감, ‘골목길의 아이들’이 알려준 행복,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얻은 모험의 묘미 등. 특히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모험의 의미는 차씨가 생각하는 판타지의 매력과 맥을 같이 한다.

“판타지는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만나기도 하고 이상향을 펼칠 수도 있지요.”

10년 전 계몽사 주최 아동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동화작가로 발을 내딛은 차씨는 스스로 동화작가가 된 것을 숙명이라 말한다. 대학 때 전공이 국어교육이었고 이후 교사생활을 했으며 그 후엔 교육대학원까지 나왔으니 그가 시선을 돌리는 세계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세계와 닮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처음 썼던 동화가 덜컥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차씨는 좀더 본격적으로 작가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어린이도서관을 드나들었다.

“소설가들은 책을 쓸 때 자기 이야기를 주로 쓴다고들 하잖아요. 공모전 이후 부지런히 읽어왔던 동화책을 토대로 이번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책들을 소개한다는 건 제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당시의 감상과 추억이 바탕이 됐으니깐요.”

《반짝벌레》 이야기는 2권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차씨는 2권에서 《반짝벌레》의 전 체주제를 내용을 계획인데 책 속 세상을 만난 기쁨이에게 독서가 개인의 기쁨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

다는 걸 알려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큰 주제 안에 있는 숨겨진 또 다른 주제도 있는데요. 그건 반짝벌레와 함께 줄곧 판타지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길 잃은 분홍토끼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홍토끼는 ‘동심’을 상징하거든요. 어릴 땐 인형을 갖고 놀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형을 버리고 그것과 함께 한 기억들도 조금씩 퇴색되지요. 기쁨이가 데리고 다니는 분홍토끼는 그렇게 잊혀진 동심의 기억입니다. 결국 분홍토끼의 기억을 찾아주는 과정은 동심을 찾는 과정이나 다름 없는 것이지요.”

재미있게도 ‘책 읽는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는 차씨의 어린 시절을 가장 충만하게 해준 것들은 책이 아니란다. 책도 있지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할아버지 곁에서 자연을 벗삼고 잠든 사이에 자신이 데리고 놀던 인형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시절들이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분홍토끼의 출연에는 그 시절을 간직하고픈 작가의 바람이 한켠에 담겨 있다.

“사람들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걸 알고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떨 땐 위로가 되고, 어떨 땐 기쁨도 주고, 꿈도 되는 게 달이거든요. 제가 써왔고 앞으로 써나갈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달과 같은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장소를 의미하는 ‘보금자리’에서 따왔다는 그의 이름을 닮은 동화작가 차보금 씨. 그는 앞으로 동심의 마음을 잘 담아낼 쟁반같이 둥근 동화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글을 쓸 계획이다. 한편 판타지의 즐거움을 맛보고 다양한 동화책을 읽어 볼 기회까지 동시에 제공할 《반짝벌레》 2권엔 우리가 너무도 그리워했던 ‘말괄량이 삐삐’가 출연대기중이라니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 어떤 관심세례를 받을지 자못 기대된다. **김민**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